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5.28

[2차전지]
김철중
chuljoong.kim@miraeasset.com
정세훈
sehoon.jung@miraeasset.com

2차전지

가격 수용력이 다른 데이터 센터용 ESS

- LG에너지솔루션 – DTE – 오라클 향 ESS 수주 확정
- 수주 규모와 금액 역산 시, kwh 당 260달러 수준 계약한 것으로 추정
- 작년 첫 논의 시점 대비 물량은 2배 이상 증가, 판가는 25% 이상 상향 조정 추정
- On-site뿐만 아니라 Off-site ESS도 데이터 센터 향은 판가 수용도 높다고 판단

LG에너지솔루션-DTE 향 ESS 수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DTE에너지에 2.4조원수주 계약에 성공했다. 물량은 6Gwh 이상이며, 공급 기간은 2년이다. 물량과 계약 규모를 역산 시, 판가는 kwh 당 260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가 주목하는 점은, 절대 규모보다 해당 수주 건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되었던 작년 하반기 대비 물량과 판가가 모두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논의 초기 물량은 3Gwh 내외, 판가는 kwh당 200달러 초반이었으며, 금액 환산으로 1조원 이하 규모로 논의를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주 논의가 진행된 지난 8~9개월 동안, 1) 수주 물량은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었으며, 2) Kwh 당 판가 역시 +25% 이상 상향 조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시간은 없고 자금력은 많은 빅테크

해당 수주 건의 공급은 내년 상반기 시작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종 고객사는 오라클일것으로 예상하며, 핵심 AI 토큰 공장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듀레이션 4시간, FTM, 피크 수요 대응) 목적으로 판단한다. 신규 발전소로 공급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AI 데이터 센터의 피크 수요 대응이 안될 경우, 정전을 비롯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AI 데이터 센터용 ESS의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수주 건의 1) 물량, 2) 판가가 크게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당사는 판가 부분에 주목한다. 기존 논의하던 제품의 스펙의 변경없이 Kwh 당 판가가 +25% 이상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빅테크의 가격 수용력이 타 배터리 섹터 전방 고객사들과 다르다는 방증이다.

당사는 5월 26일 산업 전망 보고서(각 나온다)를 통해, 데이터 센터 용 ESS의 가격 수용력이 높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사의 보고서에서는 On-site 용(데이터 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ESS, Ex. BBU, UPS)가 타 제품 대비 가격이 높으며, 일부 전고체 업체들의 시장 진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빅테크 고객사들의 가격 수용력이 높을 것을 언급하였다. 단, 금번 수주 건은 On-site가 아닌 Off-site(에너지사업자를 통해 데이터 센터 외부 전력망 연결 용)임에도 불구, 판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한다.

On-site, Off-site든 최종 고객사는 빅테크이며, 해당 밸류체인은 과거 타 고객군들과 달리 배터리/ESS 제품에 대한 가격 수용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